

HOLY HABIT MOVEMENT PART 3

6. 영향력 - 확산되는 그리스도의 향기

1. 자신에게 영향력이 생기길 소망한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주목받거나 권력을 갖고 싶다가보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가치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삶의 방향에 선한 영향을 주는 자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은사라고 여기고 그 분의 뒤를 따라가고 제자를 자처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 그 가운데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려 제국이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히 제국의 중요한 직분을 맡으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 그러나 정작 다니엘은 영향력을 갖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영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영향력은 자신의 어떠 함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편지를 가리킵니다.

2. 다니엘을 만난 왕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살아 계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니엘은 그 살아 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오해와 같은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구별된 삶, 곧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항상 애썼습니다.
- 다니엘은 이방 왕들 앞에서도 신앙의 타협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그의 정직함, 지혜, 기도 생활은 왕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다니엘은 인간적인 설명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의 능력 뒤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항상 겸손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온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나의 삶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듣는 편인가요? ‘남들과 뭔가 다르다’거나 ‘행복의 비결이 궁금하다’거나 ‘예수님을 알고 싶어졌다’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 이 질문은,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내 신앙이 겉모습이나 말 뿐인지 아니면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앞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는 질문입니다.
- 그러므로 영향력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저 복음을 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코 숨길 수 없는 빛이 우리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 혹시 그런 피드백을 듣지 못했을 지라도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길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나는 세상과 “다름”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4.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의를 행할 때 결코 숨길 수 없는 복음의 영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복음의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진실하시며 은혜로우신지 전해야 합니다.

❷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단순히 단회적, 일시적 도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분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5.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명하신 어두운 곳은 어디인가요? 또 썩지 않게 해야 할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적어 봅시다.

- 다니엘은 공직자로서 총 네 명의 왕 아래에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업적, 성격은 물론 종교도 다른 이 왕들은 신기하게도 다니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세상 밖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살아가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구별된 삶은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되어 가는 곳을 막아냅니다.
- 특히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등 내가 매일 혹은 자주 머무는 그곳이 바로 나에게 맡기신 영역입니다.

1.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건져 내신 사건은 다리오왕과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 다리오왕은 현명하고 정직한 다니엘을 몹시 아끼고 신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서 한 장으로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린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슬퍼합니다. 이 일을 통해 그는 왕인 자신조차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사자 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았을 때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 곧 여호와와 능력과 주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우상을 섬겨 온 다리오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단 6:26-27).
-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다리오왕은 공식적인 칙령을 통해 온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알리고, 이방 국가에 하나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존중받고 전파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 당시 포로의 신분이었던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땅에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깨달으며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2. 만약 다니엘이 영향력을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 업적을 통해 영향력을 얻고자 했다면, 그는 아마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았고 총리직까지 올랐지만,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만 집중했습니다.
- 만약 그가 인간적인 성공과 영향력을 위해 움직였다면, 사자 굴 사건 때 자신을 변호하거나 왕에게 아첨하며 살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가 오히려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진짜 영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과이지,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님을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3. 앞에 나서서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 본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혹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느냐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마다 내가 중심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와 태도를 점검하고 기도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은 외적인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준 삼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그 안에 담긴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은 사람을 살리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4.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신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신다면, 그 목적은 분명히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성품과 진리,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곧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소금의 역할로 쓰여야 합니다.
-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맡기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